마을자치연금 연수소 지정

전국 제1호 익산시 성당포구마을, 교육 거점화 추진

'마을자치연금 뿌리' 익산이 대한민국 마을자치연금 시대를 견인해 전국 확산거점을 마련했다.

13일 익산시는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손을 잡고 농촌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마을자치연금의 전국 제1호 마을인 성당포구마을을 '마을자치연금 연수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 국민연금공단 김정학 연금이사, 최종오 익산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에서 지정식을 개최했다.

연수소는 마을자치연금제도 활용방안과 인력을 활성화하고 마을자치연금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전국적 확산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지정됐다.

한편 마을자치연금제도의 전국시대 개막 준비는 노후소득 강화와 농촌 공동체 회복기반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프로젝트인 마을자치연금은 2021년 7월에 마을자치연금 전국 제1호 마을(성당포구마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국적 표본모델을 도입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금과 체험 및 숙박시설 및 캠핑장 운영 등 마을사업을 통해 10만원씩의 자치연금을 해당 노령인구에게 작년 8월부터 지급하고 있다.

전국 제2호 마을인 완주군 도계마을 또한 지난 6월부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마을공동체 수익금을 합산해 연금지급이 시작됐다. 익산시는 함열읍의 '금성마을'을 전국 제3호 마을로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어촌분야에도 확산돼 고령어업인의 어촌 이탈방지와 어촌지역 거주민 노후보장을 위한 '어촌마을 자치연금사업'이 전국단위 사업 준비가 한창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국민연금공단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은행 등 5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어촌마을 자치연금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 같은 전국 확산에 대비해 마을자치연금 연수소에서 마을자치연금 노하우 전수 및 교육의 장으로써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자치연금 추진 배경과 과정 설명 및 컨설팅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벼농사+재생에너지 생산 2모작' 실증사업 추진

군산시, 농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시범 사업 공모 선정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시범사업은 에너지 고갈 등 자원 위기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발맞춰 농업에서 작물재배와 신재생에너지를 동시에 추진 할 수 있는 정부정책 사업이다.

농지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구조물을 설치하고 태양광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아래 농지에서는 농작물을 재배,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동시 충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10개소에서 실증사업 중이며 금년에 군산을 비롯한 4개소가 추가로 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군산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은 시농기센터 내 1,200㎡ 규모에50kw 생산용량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생산된 전기는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에 자체 공급해 전력사용 비용을 50%까지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3년간 관내 대표 벼품종인 신동진벼를 대상으로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서의 논벼 수량 변화와 농기계활용을 고려한 시설 설치, 태양광 적정모델 선정과 태양광에서 발생되는 전기 생산량 등 논벼 실증재배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과 연구를 진행한다.

신동우 기술보급과장은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시범사업은 기존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전기생산과 농작물 재배를 동시에 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태양광 하부에서의 작물 재배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농업인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청년의날 기념 '청하' 행사 개최

익산시가 청년 문화를 응원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장을 열어간다.

시는 '2022 청년의 날'을 기념해 '청하(청년의하루)!' 행사를 오는 17일 오후 3시에 모현동 롯데시네마 4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상에 지친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낸다'는 컨셉으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해 만든 문화행사다. 익산시 청년시책 안내 영상과 최신 영화 '공조2'를 관람하고 버스킹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관람방식을 '연인이나 친구랑 = 1+1 관람', '부모님과 효도관람 = 1+2 관람'을 선택할 수 있어 친구, 연인, 가족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는 15일 오후 5시까지 익산청년센터 청숲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웹포스터 QR코드를 통해 행사 참가자 300여명을 사전 접수받는다.

대상은 1982년생~2004년생 익산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동반인은 연령이나 거주지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익산시와 청년기획단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익산 청년시청이 준공되는 11월 중순에 맞춰 청년주간을 기획해 토크콘서트, 플리마켓, 해커톤, 문화공연 등 더 풍성하고 알찬 청년의 날 행사를 기획 중에 있다.

정헌율 시장은 "청년의 날을 맞이해 뜻깊은 행사를 기획해서 기쁘다. 행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청년의 권리보호와 고용촉진, 정책결정 과정 참여확대, 복지향상 등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풍성한 공연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한다.

시민과 시립예술단이 함께

익산시 '다이로움 콘서트' 16일 개최

익산시가 풍성한 공연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에 시민과 시립예술단이 함께하는 '2022 다이로움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공연은 익산시 권역별로 야외 공연장을 설치해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공연으로 중앙체육공원에서 진행하게 된다.

익산시립예술단의 무용단은 '무왕, 영광에 서다'와 '입춤'을 준비하였고, 풍물단에서는 '토닥토닥'과 '판굿'을 합창단에서는 '첫사랑'과 '과수원길', 'Happy things' 등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익산시립예술단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익산시립예술단)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예술의전당(063-859-3249)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립예술단은 익산시 문화예술의 한 축이 되어 문화예술도시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선선한 가을밤 중앙체육공원으로 나들이 나오는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시민 인생기록 자서전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가 시민의 인생 여정을 민간역사로 기록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해 나간다.

시는 '나와 부모님의 인생이야기'를 통해 기록문화를 만들어가는 '시민 자서전(自/子書傳)' 프로그램을 이달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한다.

자서전은 자신의 삶과 부모님의 삶을 주제로 기록집을 남기는 활동을 통해 민간기록을 쉽게 이해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삶을 기억하고 기록하다'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총 6회차로 이뤄진다. 우수 민간기록 선진지 견학과 함께 직접 자서전을 만들어보고 전시까지 진행된다.

민간기록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기록의 중요성과 활용 사례를 알리는 민간기록 전문가가 진행하는 시민 대상 특강도 두 차례 기획됐다.

교육 참가 신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통합예약·교육강좌 ·교육신청·시민기록가 탭에서 접수받는다.

시 관계자는 "일상적인 주제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기록문화를 확산시키고 향후 민간기록물 관련 사업의 주체가 될 시민기록 활동가를 양성하여 익산의 기록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제2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치고 접수된 기록물을 제2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 전시회를 개최하여 전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 7일에 익산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익산의 변천 및 생활상과 익산의 교육을 알 수 있는 기록물과 제2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수상작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02억원 부과

익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8만7천여건에 대해 202억원을 부과하고 8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2기분)으로 토지분은 7만7천건, 178억원이며 주택(2기분)은 1만건, 24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비해 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1주택자 공정가액 비율 인하 영향으로 5억 감소,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6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주택은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금액을 나눠 부과한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보건소, 인플루엔자 어린이·임신부 무료접종

군산시보건소는 2022년도 어린이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오는 2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절한 면역 획득을 위해 생애 첫 접종 대상 어린이(2회접종 대상자)는 9월중 1회 접종 후 4주 간격으로 10월 중에 2차 접종을 완료하면 되며, 그 외 어린이(1회접종 대상자)는 10월 5일부터 접종하면 된다.

특히 1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는 유행시기, 면역력 유지 기간을 고려해 12월까지 접종을 미루지 말고 9월중으로 접종을 시작해 인플루엔자 유행 전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권장한다.

보건소 어린이 접종은 관리번호발급대상자(주민등록번호 없는 내국인,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장기체류자)만 실시하며, 임신부는 주수 상관없이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임신진단서 등)를 제시하면 된다.

주소지 관계없이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기자